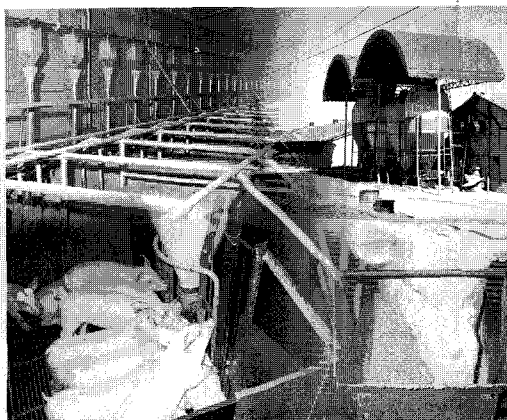


배합사료 시장 동향 및 사료가격 안정화를 위한 대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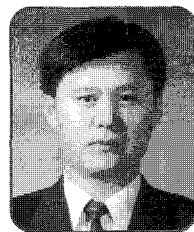


1. 세계 사료원료 시장 동향과 선임시장

지난 수년동안 안정세를 유지해 오던 세계 사료원료 가격이 지난해 11월 이후 지속적인 급등세를 유지해 오고 있다. 이같은 사료원료의 가격 급등은 해상운임의 폭등과 함께 2000년 이후 유럽의 광우병 발생 이후 동물성 단백질 원료가 식물성 단백질 원료로 대체되면서 식물성 단백질 원료의 가격이 급등하면서 전체 사료원료 가격의 상승을 주도해 오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대두박을 제외한 야자박, 면실박 등의 경우는 주요 수입국인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자국내 수요증가로 수입물량의 확보마저 어려운 실정이다.

사료원료의 경우 원료간 상호 대체성으로 인해 식물성 단백질 원료의 가격상승은 여타 곡류원료로의 가격상승을 불러왔으며, 그동안 옥수수나 대두박과 같은 주요 원료의 대체원료로 이용되던 사료용 소맥의 수출이 끊기고, 우리나라의 최대 옥수수 수출국이었던 중국마저 수출물량 제한조치로 수출을 중단하자 가격폭등과 함께 점차 수급 불안정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지난해 평균 118불대를 보여주었던 미산 옥수수 가격은 3월말 현재 200불을 넘어서고 있고, 중국산 옥수수도 이미 175불대 이상에서 구매되고 있다. 지난해 평균 216불대를 나타냈던 대두박의 경우는 385불대에서 구매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와 같이 사료원료의 가격이 폭등하고 있는 것은 전반적인 사료원료의 수급 불안정과 함께 지난 2003년 9월 이후 해상 운임(Freight)이



김치영 부장
한국사료협회

폭등하고 있는데 그 원인이 있다. 최근 중국이 경기호전으로 인해 철광석, 석탄 등의 원자재 수입을 늘리면서 이를 운송하기 위한 건화물선의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면서 선임 폭등을 불러왔다. 그 결과 지난해 초 25불대에 머물던 GULF 선적 선임이 최근 75불대까지 치솟았고, 중국에서 오는 선임도 7불대에서 20불대를 나타내고 있다.

이처럼 해상운임의 상승과 수급 불안정으로 야기된 사료원료의 가격폭등은 그렇지 않아도 지난해 말부터 가축질병과 축산물 수요감소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는 우리 축산업과 사료산업에 배합사료 가격인상이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 때문에 축산물 생산도 크게 위축되면서 금년 2월말 현재 배합사료 생산량은

전년동기 대비 7% 가까이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의 배합사료 가격인상 요인을 그대로 사료가격에 모두 전가시킬 경우 양축농가의 부담은 더욱 가중될 수밖에 없으므로 가격인상을 조금이라도 완화시킬 수 있는 정부측의 정책적인 지원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그동안 축산·사료업계에서 요구해 왔던 사료원료에 대한 관세제도의 개선과 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 공제율 상향조정 등을 통해 배합사료의 세액 부담을 줄여주는 한편 사료원료의 다변화를 통해서 수입 사료원료의 선택 폭을 넓혀주는 것이 필요하다.

2. 사료 가격 안정화를 위한 정부의 정책지원

1995년의 UR로 시작되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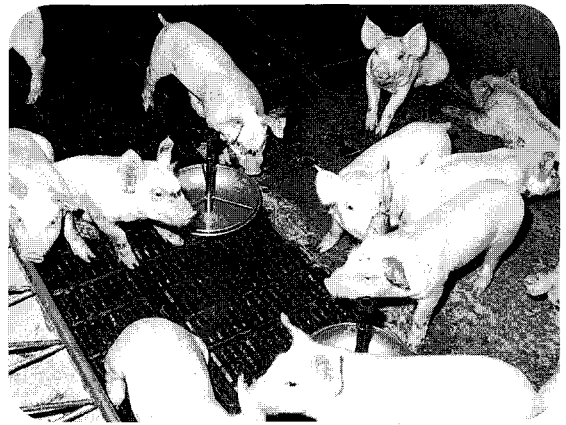
세계경제의 글로벌화는 새로운 세계경제의 질서를 개편하는 WTO의 출범으로 정점에 이르러, 이제 어느 상품 어느 국가를 막론하고 자유로운 유통구조를 가지게 되었다. 축산업도 예외는 아니어서 축산물은 물론이고 생축(生畜)이 수입되는 완전개방 시장구조를 가지게 되었다. 이와 같은 축산물 시장의 완전개방구조 하에서 우리 축산업이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안전성을 포함한 품질경쟁과 가격경쟁에서 수입축산물에 비해 우위를 확보하여야만 한다.

2001년도 우리나라 축산물 생산비 보고서에 따르면 축산물 생산비중 사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축종에 따라 30~50%로서 가장 큰 부분을 점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마리당 농후사료 급여량이 매년

세계 사료원료 가격이 지난해 11월 이후 지속적인 급등세를 유지해 오고 있다.

전반적인 사료원료의 수급 불안정과 함께 지난 2003년 9월 이후 해상 운임(Freight)이 폭등하고 있는데 그 원인이 있다. 사료원료의 가격폭등은 우리 축산업과 사료산업에 배합사료 가격인상이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 때문에 축산물 생산도 크게 위축되면서 금년 2월말 현재 배합사료 생산량은 전년동기 대비 7% 가까이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의 배합사료 가격인상 요인을 그대로 사료가격에 모두 전가시킬 경우 양축농가의 부담은 더욱 가중될 수밖에 없다.



- 2001년도 우리나라 축산물 생산비 보고서에 따르면 축산물 생산비중 사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축종에 따라 30~50%로서 가장 큰 부분을 점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마리당 농후사료 급여량이 매년 증가함에 비추어 볼 때 향후 사료비의 비중 역시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우리 축산물의 생산비용을 절감하고 가격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사료 가격 안정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증가함에 비추어 볼 때 향후 사료비의 비중 역시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우리 축산물의 생산비용을 절감하고 가격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사료가격 안정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축산농민의 사료비 절감을 통한 생산비용 절감을 위해서는 우리 배합사료 업계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연구와 노력이 우선되어야 하겠지만, 이와 아울러 수입의존도가 90%에 이르고 있는 사료원료에 대한 무관세(無關稅)적용, 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의 상향조정과 같이 사료생산비용을 줄일 수 있는 정책개선이 병행되어야 한다.

현행 우리나라의 사료원료에 대한 실행관세율은 품목에

따라 2~20%가 적용토록 되어 있으며, 일부원료에 대해 1년 단위로 조정관세의 일종인 저율의 할당관세율(0~5%)이 적용되고 있다. 이와 같은 원료에 대한 관세부과는 배합사료와 축산물의 생산원가를 높여 우리 축산물의 가격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는 결국 수입축산물에 의해 국내시장 잠식을 촉진시켜 축산업 생산기반을 위축시키는 악순환을 초래하고 있다.

우리나라에 축산물을 수출하고 있는 미국을 대표하는 NAFTA(북미자유무역협정) 회원국과 영국을 대표하는 EU(유럽연합) 회원국들은 사료원료들에 대해 평균 3% 내외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나, 이는 북미국가들과 유럽

국가들 사이의 농산물 교역과정에서 파생한 명목상의 관세율일 뿐 실질적으로는 축산물 수출국인 동시에 사료원료 수출국으로서 관세부과의 의미가 전혀 없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경우 이들 국가들에 비해 사료와 축산물의 생산단계에서부터 사료원료에 부과된 관세만큼 경쟁력이 뒤질 수밖에 없는 것이며, 관세면제로 인한 사료 및 축산물 생산비용 절감효과는 둘째로 치더라도 축산물 수출국과의 동등한 경쟁여건을 조성하는 정책개선 차원에서라도 사료원료에 대한 관세는 면제되어야 한다.

특히, 국내 사료자원이 부족해 불가피하게 사료원료의 90%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료원료에 대해

현재보다 현저히 높은 관세를 부과한다고 해도 수입량이 감소될 수 없는 구조를 지니고 있으므로, 사료원료에 대한 관세부과는 이미 국내 원료산업을 보호하는 보호관세로서의 기능을 상실하였다고 판단된다. 오히려 사료원료에 대한 관세부과는 무역자유화 정책시행 등 제반여건상 경영이 악화되고 있는 축산업과 양축농민에게 세(稅)부담을 지우는 財政關稅(관세수입)로서의 역기능만을 낳고 있는 것이다.

사료원료의 거의 전량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고, 자국내 축산물 시장이 외국 축산물에 의해 잠식당하는 등 우리나라와 축산 및 사료산업의 구조가 유사한 일본의 경우 자국의 축산업과 사료산업 보호를 위해 이미 1954년부터 모든 사료원료에 대한 관세를 면제(無關稅 適用)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의 경우도 연간 약 250~300여억원에 이르는 사료원료에 대한 관세면제(무관세 적용)를 통해 사료 및 축산물의 생산원가를 낮춰 우리 축산물의 가격경쟁력을 제고시키는 정책적 지원정책이 절실하게 요구된다.

사료원료에 대한 무관세 적

용과 함께 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공제를 역시 상향조정이 필요하다. 의제매입세액공제 제도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농산물 등의 원료를 가지고 부가가치세가 과세(課稅)되는 제품을 만드는 경우 원료가격에 포함되어 있는 부가가치세 상당액에 대해 이중과세(二重課稅)가 발생하게 되며, 이와 같이 발생하는 이중과세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원료에 포함되어 있는 부가가치세액 만큼을 납부세액(納付稅額)에서 공제해 주는 제도로서 사료원료중 의제매입세액이 공제되는 원료는 옥수수 등 곡류원료와 소맥피, 미강 등이 있다.

우리나라의 의제매입세액공제 제도는 부가가치세법도 도입된 1977년부터 시행되어 왔으며, 이 제도의 도입 당시에는 10/110(9.09%)의 공제율이 적용되었으나 이후 수차례의 하향조정을 거쳐 현재는 2/102의 공제율이 적용되고 있다.

정부의 지속적인 공제율 하향조정에 따른 세부담(稅負擔)은 배합사료 및 축산물의 생산비용을 증가시켜 사료원료에 대한 관세부과와 함께 우리 축산물의 가격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

고 있다.

정부가 이같이 공제율을 하향조정하는 이유는 '88년 이후 세수확보를 위해 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의 하향조정 방침을 유지해 왔고, '95년 이후 배합사료(사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적용으로 의제매입세액공제 제도의 의미가 퇴색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앞서도 언급했다시피 UR/WTO의 출범으로 타 산업분야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장 큰 피해를 보고 있는 축산농민의 생산자재인 사료에 대한 공제율을 하향조정해 정부의 세수확보(稅收確保)를 도모함은 정부의 개방화 정책으로 심각한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는 국내 축산업을 더욱 큰 위기로 몰고 가는 것일 뿐만 아니라, 산업간 균형발전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못한 정책으로 판단된다.

특히, 매년 세계잉여금(歲計剩餘金)이 크게 누증(累增)되고 있는 상황에서 세수확보를 위해 사료에 대한 부가세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을 하향조정하는 것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정부는 배합사료에 대한 부가세 영세율적용으로 공제제도의 의미가 없어졌다고



원료가격 상승으로 인한 배합사료 가격인상을 최소화하고, 사료와 축산물의 생산비용을 절감하여 축산물의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기 위해서는 세제면에서 혜택을 줄 수 있는 사료원료에 대한 관세면제와 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의 상향조정과 더불어 현재 사료용으로 수입이 제한되고 있는 전지대두와 같은 사료원료를 사료업체가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발전적인 정책개선이 있어야 할 것이다.

하나 당초 사료와 축산물의 생산비용을 절감해 축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축산농민의 세 부담(稅負擔) 경감을 목적으로 배합사료에 대해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고, 이후 영세율적용의 목적에 배치되고 영세율적용 효과를 반감시키는 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을 하향조정하는 정책을 시행함은 모순이 아닐 수 없다.

특히, WTO 제2차 협상 등 앞으로의 세계무역 질서는 자국산업에 대한 정부의 직접보호(정책지원)가 극히 제한적으로 운용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향후 정부의 축산업에 대한 정책지원은 새로운 세계

무역질서에 부응하면서도 정책의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지금까지의 직접지원 정책에서 관련산업에 대한 간접지원(세금감면 등) 정책으로 전환되어야 하는데, 사료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의 상향조정은 이에 부합되는 매우 효과적이고 바람직한 축산업 지원정책으로 판단된다.

지금 우리의 축산업은 수입축산물에 의한 시장잠식, 축산분뇨의 환경문제화, 가축질병의 발생에 의한 경제적 손실과 소비량의 감소 등으로 매우 어려운 경영난에 봉착해 있다. 이에 향후 수년간 이 우리 축산업의 장래가 밝아지느냐 어두워지느냐를 결

정하는 매우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된다.

따라서 이같은 중요한 시기에 원료가격 상승으로 인한 배합사료 가격인상을 최소화하고, 사료와 축산물의 생산비용을 절감하여 축산물의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기 위해서는 세제면에서 혜택을 줄 수 있는 사료원료에 대한 관세면제와 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의 상향조정과 더불어 현재 사료용으로 수입이 제한되고 있는 전지대두와 같은 사료원료를 사료업체가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발전적인 정책개선이 있어야 할 것이다. **양동**

본지 캠페인

돈열 박멸 없이 양돈산업 미래 없다